

■ 2026년도 문학레지던시사업 상반기 입주작가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도 문학레지던시사업 상반기 입주작가 심의
- 회의일시 : 2025년 12월 18일(목) 16:00~18: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고봉준, 구효서, 김지은, 장인수, 지영주

2025 문학레지던시 상반기 입주 작가에게 집필 공간을 후원하는 곳은 모두 세 곳으로 서울프린스호텔, 협성마리나 G7, 남이섬 호텔정관루이다. 사전에 공지된 바와 같이 각 레지던시의 운영 주체가 제시하는 개별 지원자격과 민간기업의 후원사업 취지와 공통의 기준을 나란히 고려하여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지원자 가운데 간혹 두 곳 이상에 신청한 경우가 있었으나 더 많은 작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지원자는 한 곳에만 선정 되도록 하였다. 중복 신청자의 경우, 제출한 집필 계획을 검토하고 해당 기관이 요청한 기준을 함께 살펴 더욱 적절한 집필 공간에 배치되도록 조정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입주 공간에서 창작하고자 하는 새 작품의 기획 의도를 너무 간략하게 쓰거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만 제출한 지원자들이 많아 아쉬웠다.

이 공모 사업은 문학 작가들에게 작품 창작을 위한 집필 공간을 제공하여 좀 더 좋은 창작 환경에서 창작에 집중하고 우수한 작품을 집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공간에서 집필된 작품이 이후 출간으로 이어져서 실질적으로 작가가 활발히 활동하며 독자를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격려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에 “차년도에 작품집 발간이 확정된 작가” 면 우대한다는 지원 조건이 있었으며, 따라서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어느 정도 원고 관련 사항이 진행된 경우를 우선 선정하고자 했다.

차후에 이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라면 창작 계획과 작품의 기획 의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겠다. 계약서나 관련 서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하고 만약 확정된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작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길 바란다. 심의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원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긴요하게 집필 공간의 필요성을 갖고 있겠지만 후원기업이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 이제 막 발돋움하려는 신진 작가, 새로운 작품의 집필을 확정하고 진행 중인 작가에게 조금 더 절실하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후원하는 세 곳 레지던시 중에서 서울프린스호텔은 수도권 이외 지역 거주 작가를 우대하는 조향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점일 경우 비수도권 거주 작가를 선정하였다. 협성마리나 G7은 레지던시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부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집필하려는 작가를 우대한다. 작품 창작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을 심의위원들이 함께 읽고 토론하여 지원자를 선정하였다. 남이섬 호텔정관루는 아동 도서의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아동 도서, 청소년 도서를 발간한 경험이 있거나 이와 관련하여 활동 중인 작가를 우대한다. 따라서 지원자 중 아동문학 작가를 우대하여 살펴봤으며, 숙의를 거쳐 입주 작가를 선정하였다.

이번 문학레지던시 지원신청 대상 목록을 보며 전반적으로 장르 문학 쪽의 지원자들이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작가 중에 장르 문학을 창작하는 지원자도 있지만, 해당 사업을 후원하는 기업의 사업 목적과 예술위원회 기관 특성을 고려했을 때 문학의 영역이기보다 다른 예술 영역으로 보이는 작업을 다수 선정하기는 어렵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예술 분야가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을 추진하는 예술위원회에서도 더 많은 예술가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포용적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

아직도 지원 작가의 숫자에 비해 후원 공간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본 사업을 통해서 의미 있는 작품들이 출간되고 그 작품들이 독자의 큰 응원을 받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앞으로 문화예술을 후원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이 늘어나고 예술 현장과 후원 기업이 서로 지지하는 긍정적인 사례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우리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기업과 좋은 작품의 집필을 위해 분투하시는 지원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심의위원 일동